

이전 후기에 학교 소개, 수업, 교통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 저는 친구들과 생활하며 느낀 점을 위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6 개월 동안 최고의 교환학생 생활을 보냈기에, ETH Zürich 교환학생을 강력 추천합니다. 우선, 한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큰 장점으로 작용했는데, 덕분에 이미 있는 한국인들과는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외국인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영어 실력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특별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1. 수업

A. 독일어 수업

개강 전 2 주 동안 매일 진행되는 Intensive German Course 를 수강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강력 추천합니다. 단순히 독일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교통 카드도 사고, 은행 계좌도 개설하고, 필요한 일들을 같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도시를 둘러보고, 주말에는 하이킹을 가고, 학기 중에도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도시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에, 이 수업을 추천합니다.

B. 전공 수업

i. Data Conversion System Design

이 수업은 처음에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TA 가 진행한 문제 풀이 시간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문제 풀이를 통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목은 구술 시험(oral exam)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느낀 점은, 교수님께서 학생이 핵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핵심 내용을 말한 후,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 설명했는데, 교수님이 이를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oral exam 에서는 핵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ii. Communication Systems

이 수업에서 교수님의 강의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를 너무 흥미로웠고, 설명이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오기 전까지는 통신 분야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연구 분야에 통신을 포함할지 고민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iii. 15 Credit Project

교환학생임에도 불구하고 ETH 에서 연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Post-doc 박사님의 지도 아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 주제를 이해하고,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 조건을 조절하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과정까지 경험했습니다.

특히,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론과 실험이 다를 수 있음을 직접 체감하면서 연구가 어떤 과정인지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iv. Wearable and Mobile Technologies of the Future - Focus on Sports and Health

이 수업은 Wearable Healthcare 에 관심이 있어 수강했습니다. 3 인 1 조로 구성되어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통해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코딩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며, 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업들에 비해 특별히 추천할 만한 점이 적어, 굳이 강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2. 생활

A. 주거

저는 Sonneggstrasse 17 이라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후기 보고서에서 후기가 없었던 기숙사라 정보가 부족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최고의 기숙사였습니다. 한 flat 에 6 명씩, 총 4 개의 flat 이 있으며, 주방은 1 층에 하나만 있어 24 명이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방을 함께 사용해 정신이 없고, 요리할 때 냄새가 옷에 배는 이슈가 있어 당황했지만, 학기가 끝나고 돌아보니 주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었고,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냈던 기숙사는 Zentrum Campus(main campus) 내에 위치해 있어, 수업이 Zentrum Campus 에서 진행된다면 모든 강의실을 도보 5~10 분 내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두 달을 제외하고는 Monthly Pass 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숙사 방에는 개인 샤워실, 변기, 세면대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단, 한 개의 방은 변기가 방 밖에 위치합니다.) 이런 편의 시설 덕분에 다른 기숙사보다 가격이 다소 비쌌지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층에 6 개의 방이 있는데, 방 크기가 모두 달랐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가장 큰 방을 배정받아 침대가 두 개였지만, 제 옆 방 친구의 방은 조금 작았습니다.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친구들과 친해지기에는 최고의 기숙사였습니다.

저희 기숙사에는 12 명의 석사생과 12 명의 교환학생이 함께 살았습니다. 모두가 너무 친해 적극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찾아 만날 필요 없이 기숙사에서 보내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함께 요리를 하며 potluck 을 했고, 교환학생들은 거의 매주 스위스 및 유럽 여러 국가를 여행했습니다.

B. 요리

저는 스위스에 오기 전까지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세계에서 빅맥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일 정도로 외식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지인도 직접 요리를 해 먹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mensa(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해서 사 먹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도시락을 싸 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문화였습니다. (물론 매번 mensa 에서 밥을 사 먹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스위스의 비싼 외식 물가와 직접 요리해 먹는 분위기 덕분에 매일 요리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요리가 취미가 될 정도로 재미를 붙였습니다. 기숙사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potluck 이었습니다. 각자 요리를 하나씩 준비해서 함께 나눠 먹는 문화였는데, 덕분에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고 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저희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한 potluck 사진입니다.



교환학생이 끝날 무렵, 저희는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두 도우를 직접 반죽하고, 만두를 빚고, 차슈와 라자냐 같은 요리를 만들었으며, 베이킹도 배우며 쿠키, 시나몬 롤, 머핀 같은 디저트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Thanksgiving Day potluck 에서 제가 만든 stuffed mushrooms 입니다!



현지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직접 풍두를 만들어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의 대표 음식인 풍두와 라클렛도 친구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 취리히에서 외식으로 풍두를 먹으면 인당 40~50 프랑이 들지만, 마트에서 풍두 치즈를 사서 직접 만들면 훨씬 저렴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c. 장보기

장을 보는 것 또한 저희에게 큰 재미 요소였습니다. 스위스에는 네 종류의 주요 마트가 있는데, 가격이 비싼 순서대로 Coop, Migros, Aldi, Lidl 이 있습니다. Aldi 와 Lidl 은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저희 기숙사 친구들은 주로 Aldi 와 Lidl 에서 장을 봤지만, 거리가 멀어 가끔은 집 근처에 있는 Coop 과 Migros 도 이용했습니다. 저는 강 근처에 있는 Lidl 을 가장 많이 이용했는데, 마트 규모가 커서 추천합니다.

D. 여행

저는 친구들과 거의 매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스위스 국내 여행도 많이 했고, 다른 유럽 국가도 방문했습니다.

-스위스 국내 여행



스위스에서는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하이킹을 하고, 겨울에는 스키를 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9월 초반에 도착해서 하이킹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이킹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첫 주에 독일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Pizol 5 Lake 하이킹을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꽤 높은 난이도의 코스라 정말 힘들었지만, 열심히 걸어 올라가 멋진 호수 뷰를 보았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이게 스위스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이 응원해 주고 함께해 준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루체른에 가서 유람선과 기차, 케이블카를 타고 리기산을 방문했고, Stoos 하이킹도 다녀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용프라우와 그린델발트도 방문했고, 인터라켄에서는 패러글라이딩도 체험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위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쁘고 재미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St. Moritz 입니다. 친구들과 얼어붙은 강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눈싸움을 하며 보낸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한, 체르마트에서 2박 3일 동안 스키를 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후로 거의 타 본 적이 없던 초보였지만, 다른 친구들은 선수급 실력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스키를 탈 수 있어 최고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응원해 주고, 부족한 점을 도와줘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위스 현지인에게 스키 레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가까운 스키장이라면 당일치기로도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스키 장비를 가져오지 않아 Decathlon 에서 대부분을 구매하고, 스키만 대여했습니다. 유럽 친구들은 개인 장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고,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은 Ricardo 라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스키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할로윈에는 호박 축제를 가고, 베른에서는 치즈 축제를 다녀오는 등 다양한 스위스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치즈 축제에서는 모두가 이쑤시개를 들고 다니며 100 가지가 넘는 치즈를 무료로 맛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너무 귀엽고, 맛있고, 재밌어서 정말 추천합니다.

- 다른 유럽 국가 여행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이스탄불, 부다페스트, 바르셀로나, 리스본, 파리, 콜마르, 프라하, 밀라노, 뮌헨, 프라이부르크, 콘스탄츠, 런던 등을 여행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같은 Airbnb 에서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며 여행하는 경험은 교환학생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유럽 여행을 하면서는 다양한 현지 음식을 즐겼습니다. 또한,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새벽까지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스탄불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한, 스위스인들이 독일에 가서 장을 보는다는 말을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들었지만, 실제로 저희도 독일 콘스탄츠에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콘스탄츠는 스위스 교통권으로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라서, Night GA 를 가지고 있다면 오후 7 시 이후에는 무료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는, Friends Pass 를 이용하면 친구들과 저렴하게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St. Gallen 을 당일치기로 방문한 후, 콘스탄츠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장을 본 후 돌아왔습니다.

E. Polyball

Polyball 은 ETH Zürich 에서 주관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장식 무도회로, 매년 9000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무도회를 ETH 의 메인 건물인 HG 에서 개최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레스코드가 엄격하기 때문에 드레스, 정장, 구두가 필수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 취리히에서 드레스와 구두를 구매했으며, 친구들은 이스탄불 등 여행 중 방문한 도시에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당일, 학교 건물은 화려하게 꾸며졌고, 친구들도 모두 차려입어 무도회 분위기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대규모 무도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색다르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덕분에 교환학생 생활 동안 가장 즐거운 순간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기에, ETH 교환학생으로 온다면 꼭 참여해보기를 추천합니다.



F. 외식

스위스에서는 외식이 비싸고 맛이 없기로 유명해서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중에서 괜찮았던 몇 곳을 추천합니다. 다만, 스위스 현지 식당의 맛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다면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Mensa: ETH 및 UZH 에는 여러 개의 Mensa(학생 식당)가 있습니다. 그중 Asia Mensa 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음식이 더 맛있습니다.

Zuri bistro: 학생들이 많이 찾는 케밥 가게로, chicken wrap 을 추천합니다.

Swiss Chuchi Restaurant: 취리히에서 가장 유명한 풍류 식당입니다. 이 식당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줄 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스테이크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스위스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즈 냄새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당에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에 치즈 냄새가 납니다 ㅎㅎ (라클렛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McDonald's, Burger King: 한국보다 맛있습니다.

Holy Cow!: 취리히에서 유명한 수제버거 가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수제버거가 훨씬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만큼 방문할 만하며, 아보카도 비프 버거를 추천합니다.

Konshi: 맛있는 중식당으로, 동파육을 추천합니다.

The Matcha Club: 말차 라떼 전문점으로, 딸기잼이 들어간 말차 라떼를 추천합니다.

G. 영어

ETH 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들으며 실생활 용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친구들이 배려해 주어 괜찮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이야기할 때는 말이 빨라 100%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비하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조차 ChatGPT 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 직접 문장을 작성하는 데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영어를 강제로 사용해야 했기에 이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두 저의 부족한 영어 실력을 이해해 주었기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H. 가져가면 좋을 물품

- 하이킹화: 스위스에서는 하이킹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이킹화를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친구들은 살로몬 브랜드를 추천했습니다.

- 방충망: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충망을 따로 붙이지 않았지만, 저는 벌레를 정말 무서워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I. 보험

저는 가장 저렴한 Swisscare 38 프랑 보험을 신청했습니다.

J. 교통

저는 Half Fare Card 와 Night GA Pass 를 모두 구매했으며, 둘 다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와 가까운 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Monthly Pass 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Friends Pass 를 정말 많이 이용했습니다. 만 25 세 미만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4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총 80 프랑으로, 4 명이 함께 이용하면 1 인당 20 프랑으로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르마트처럼 먼 지역의 경우, Half Fare Card 를 적용해도 편도 40~50 프랑 정도인데, 이런 경우 Friends Pass 가 매우 유용했습니다.

K. 은행/계좌

저는 UBS 계좌를 개설했고, 우리나라의 토스와 비슷한 송금 앱인 TWINT 를 이용했습니다.

L. 통신

저는 Swype 통신사를 이용했습니다.

3. 소감

한국에서도 자취 경험이 없던 저는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혼자 생활하게 되어 걱정이 많았지만,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예상보다 훨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고, 생활력이 성장하면서 자취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지난 6 개월 동안 찍은 사진을 보면, 모든 사진 속에서 제가 행복하게 웃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하며 진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스위스 자연을 보며 힐링하고, 직접 요리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이킹, 스케이트, 스키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단순한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며 그들의 인생 목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안정적인 길만을 가려던 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인생 스토리를 가진 멋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친했던 언니 중에는 대학을 다니다가 일을 3 년간 경험한 후 해외에서 석사를 도전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꿈을 더 크게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진로를 결정할 시점이 다가왔는데,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과대학 국제 협력실과 공과대학 총동문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